

AUTHOR 이재서

TITLE 존 칼빈의 고난에 대한 이해 연구

IN 총신논문집

vol. 29 (2009): 223-242

게 자리하고 있어서 당시의 은둔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로무알드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로무알드에게서 시작하여 다미아니로 대표되는 은둔주의의 부흥(revival of hermitism)이 중세 서유럽 교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시 교회나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물론 이단의 발흥, 그리고 개인주의나 신비주의 발전과 같은 주제들과도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로무알드는 베네딕트 수도원이념의 독점적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둔주의 운동의 제도와 이념을 도입함으로써 철저한 금욕주의와 은둔주의를 표방하는 수도원 및 교회의 개혁운동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한편 『로무알드의 전기』에 나타난 수도원이념을 압축해 놓은 「로무알드 소규칙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방에 앉아 있어야.” “세상의 모든 생각을 등 뒤로 던져버려라.” “훌륭한 어부가 물고기를 응시하듯이 너의 생각을 면밀히 살피라.” “시편에는 하나의 길이 있다. … 암송하기를 애쓰라. 그리고 읽는 동안에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멈추지 말고, 집중함으로써 서둘러 스스로를 바로잡아라.” “황제의 눈앞에서 있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게 하라.” “너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켜라.”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만족하고 앉아 있어야.” 이상의 말들에 나타나듯이 이 「소규칙서」는 철저하게 은둔적이며, 자기 소멸과 함께 세상에 대한 경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로무알드의 은둔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존 칼빈의 고난에 대한 이해 연구

이 재 서\*

###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II. 장애고난에 대한 칼빈의 접근 |
| II. 칼빈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실천 | IV. 나가며              |

### I. 들어가며

장로교가 우세한 한국교회는 칼빈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정도가 어떨 때 지나쳐 보일 정도다. 성경보다 칼빈을 앞세우고 그가 했던 말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런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칼빈은 그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훌륭한 신학자일 뿐이다. 기독교강요를 집필하고 5대 교리를 체계화한 장로교 및 개혁주의신학의 창시자로서 최고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다. 칼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한다. 선택교리와 예정론의 도그마에 얽매어 융통성이나 인간미라고는 없는 완고한 교권주의자! 그의 기독교강요를 비판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일이<sup>1)</sup> 그런 측면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빌렘 판엡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72-174.

그러나 칼빈은 언제나 딱딱한 신학 이론만을 내세우는 신학자로서의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자상하게 배려하고 그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애쓴 사회봉사 실천가이기도 했다. 그의 전체 저술에서 사회봉사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언급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sup>2)</sup>, 그렇다고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문자적 진술이 적다고 해서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거나, 마치 칼빈은 그런 일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칼빈은 대 신학자이며 그 이후 그를 능가할 신학자를 또 찾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27세에 쓴 기독교 강요는 아직도 개신교 교리의 근간이 된다. 그가 이론 종교개혁의 혁혁한 업적을 누가 필적할 것인가! 그는 또한 훌륭한 목회자였다. 스위스 제네바 성 베드로 교회의 27년간의 담임 목회<sup>3)</sup> 후대 목회자들의 귀감으로 통한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바쁘고 분주했으며 다른 일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가 큰 영향력을 가졌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펼쳤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주제들에

2) 존 칼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존 칼빈, 『기독교강요 (중)』,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존 칼빈, 『기독교강요 (하)』,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존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4). 존 칼빈, 『음과 하나님』, 서문강 역 (서울: 지평서원 1996). 존 칼빈,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3). 존 칼빈,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2005). 존 칼빈,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I』,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5). 장 칼뱅,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존 칼빈, 『칼빈의 이사야 설교』,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3). 존 칼빈,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 김동현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존 칼빈,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 김동현 역 (서울: 엘멘, 2002).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존 칼빈,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3) 안은찬, 『칼뱅의 목회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63-67.

비해 적은 분량이긴 하지만, 여러 형식의 저술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그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와 교회의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본고는 고난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칼빈의 전반적인 사상을 살피고 실무적으로 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고난 당한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장애고난에 대해 그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제거하는 한편,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칼빈의 철학을 이해하게 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하겠다.

## II 칼빈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실천

### 1. 칼빈의 고난 인식

칼빈은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은 근본적으로는 원죄 때문이지만, 일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4)</sup>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어떤 것의 결과라는 측면보다는 뭔가를 위한 과정이라는 쪽에 강조점을 둔다. 결국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도리어 유익한 것이라는 견해이다.<sup>5)</sup>

그러므로 신자라면 각종 질병들이 공격해오고 극심한 전염병이 유행을

4)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8: 시편』,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226-233.

5)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2: 창세기』,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6), 244-252.

부리고 전쟁의 참화를 입기도 하고 기근이 들어 궁핍에 빠질지라도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권면한다.<sup>6)</sup>

그러면서 칼빈은 “성도들이 격렬하고 쓰라린 궁핍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질병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모욕이 그들을 찌르지 않는다면, 무서운 죽음이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비웃을 수 있는 성도들의 강인하고 절제하는 성품을 어디서 단련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다.<sup>7)</sup> 이런 것들은 모두 본래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같은 고통 속에서 과감하게 그 고통에 항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면 그만큼 신앙인의 성품은 강하게 단련된다고 주장한다.

시편 설교를 통해서도 칼빈은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권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는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는 대신 거칠게 다루시고, 풍족한 복 대신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시고, 건강 대신 질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고만과 고통으로 시달린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언제나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돕기 원하시고, 가난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원하시며, 그가 비참한 자들의 도움이시며, 자신에게로 향해 오는 가련한 죄인들을 구해 내기만을 바라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의 품에 내려놓기를 바라시며 또한 그것을 덜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가난, 추방, 투옥, 모욕, 질병, 사별, 기타 어떤 역경일

6)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96-97.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원광연 역(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216-217.

7) 존 칼빈, 『칼빈의 경건』, *Ibid.*, 107.

8) 장 칼뱅,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박건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74.

9) *Ibid.*, 333.

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한다.<sup>10)</sup>

칼빈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라는 것은 결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거대한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며,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서는 데에서도(시113:7), 놀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그 극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 데에서도,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승리를 탈취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1)</sup>

요약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 그 벌은 육체적,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 벌은 인간에게 고통이고 고난이며,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은 그 벌을 영원히 존속시키진 않으신다. 설령 그런 상태를 남겨두는 경우라도 다른 좋은 것으로 상쇄시켜 벌로서의 기능을 끝내신다. 인간은 그 벌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혹은 잘못된 방향을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 그 벌은 하나님도 기쁘시고 본인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수단이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 혹은 불행이 갖는 의미이다.

## 2. 칼빈의 권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칼빈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이해했으며 그것은 그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그의 인간론 사상

10) *Ibid.*, 110-111.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상)』, 원광연 역(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69.

으로 이어진다.<sup>12)</sup>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 처할 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절대적 존엄과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이며, 그래서 어떤 형식의 차별이나 배척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들이 겪는 고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칼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함을 가르친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공동 선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나아가 형제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이다.<sup>13)</sup> 또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물질적 은혜의 선물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소통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강조한다.<sup>14)</sup>

특히 칼빈은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하게 강조한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순환시키지 않는 행위는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사랑의 법칙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에 따른 나눔과 소통을 통해 평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sup>15)</sup> 그는 가진 자들의 착취를

12) *Commentaries*. Edited by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Gen. 1:26. 67-68, Ps. 8:5. 270.; C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2 vols;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I, 15, 3. p. 290.

13) 존 칼빈, 『칼빈의 경건』, *op. cit.*, 89.

14) 박경수, “칼빈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역할”, 『기독교 사상』 제605호(2009), 62.

15) *Ibid.* John Calvin, *Commentary on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5), 144.

“살인자, 야만인, 가난한 자를 물고 삼키는 자, 피를 빼는 자들”이라고 까지 표현했다.<sup>16)</sup>

칼빈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그의 불운을 마치 자신이 느끼고 겪는 것처럼 동정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도울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자는 ‘결단코 자기가 베푸는 친절에 교만한 태도를 결들이거나 그들이 처한 궁핍한 처지를 견책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sup>17)</sup>

칼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근거를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인간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졌다면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갈6:10).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그가 낫선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의 골육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실(사58:7)에 의해 당신에게 친근히 대해야 할 사람을 하나의 표로 그 이방인을 주신 것이다. 또 ‘그가 비루하고 무가치하다’고 하자.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다. 또 당신이 그 사람에게 봉사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우신 하나님께 말하자면 그를 자신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그를 향해서 인정하라고 하신다. 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노력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

16) John Calvin, *Sermon on the harmony of the Gospel, Matt. 3:9-10*.

17) 존 칼빈, 『칼빈의 경건』, *op. cit.*, 92.

고 하자. 그러나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다. 또 그가 당신의 손에서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나 저주로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하자.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포용하며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마6:14, 18:35; 눅 17:3).<sup>18)</sup>

또 칼빈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가족과 가정도 주셨지만 전체적인 사회 환경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를 버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소중히 여기며 인정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을 당부한다.<sup>19)</sup>

칼빈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그런 행동에 대해 반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0)</sup>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며,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싶어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칼이 번뜩인다고 말한다.<sup>21)</sup> 또 칼빈은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수치와 상처를 하나님 당신의 인격이 멸시 받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이다.<sup>22)</sup>

18)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op. cit.*, 211-212.

19) 존 칼빈, 『율과 하나님』, 서문강 역(서울: 지평서원, 1996), 208.

20) *Ibid.*, 246.

21) *Ibid.*

22) *Ibid.*, 340.

### 3. 칼빈의 실천

칼빈은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등과 같은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강성 이미지로 비추어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행동과 실천 없이 말만하고 글만 쓰는 사변가는 아니었다. 그는 대 신학자요 이론가이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인간적인 정리를 무시하지 않는 섬세한 생활인이요 이웃사랑의 실천가임을 보여주는 방증들이 적지 않다.

우선, 그의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은 그가 평일 설교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난다. “주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신 모든 가련하고 고통 받는 백성들, 질병, 전쟁, 기근 기타 다른 형벌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궁핍, 투옥, 질병, 추방, 기타 온갖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주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모든 이에게 굳건한 인내를 주사 견디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온갖 불행에서 구원하소서.”<sup>23)</sup>

칼빈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상하며 정이 많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흔적들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볼 수 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위로의 편지들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던지 그 편지들만으로 35여권의 책을 만들 정도였다. 실업자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얻도록, 복음전파자들이 항상 강건한 영혼을 소유하도록 격려하고 상담하기 위해 그는 편지를 보냈다.<sup>24)</sup>

1557년 9월, 그가 파리 감옥에 감금된 여성들에게 보낸 격려의 서신 한 통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자상하게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만일 남자들이 연약하고 쉽게 곤란을 당한다면, 여성의 연약성은 여러분의 타고난 체질 때문에 더할 것임

23) 존 칼빈, 『칼빈의 경건』, *op. cit.*, 176.

24)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29.

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릇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sup>25)</sup>

칼빈은 당시 제네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방문하였다. 그는 수많은 병상과 장례식장에 늘 있었다.<sup>26)</sup> 흑사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시의회가 환자 방문을 금지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심방했다.<sup>27)</sup> 친구 파렐의 조카가 흑사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염성이 강해 이미 많이 인명 피해를 내고 있었음에도 달려가 위로하고 그 소년의 치료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sup>28)</sup> 그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환자들을 심방하는 것처럼 방문을 하기도 했다.<sup>29)</sup>

칼빈은 이런 개인적인 배려에 머물지 않고 제네바에서 오늘 날의 사회복지 제도를 무색케 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사회사업 활동을 펼쳤다. 그는 교회가 자선 시설 등을 통해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구제 사업이 교회 전도사업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피난민이 밀려 들어와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 제네바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사업을 마련해 주는 데 힘을 기울였다.<sup>30)</sup>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구빈원들을 통합시켜 병원과 복지관

25)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ited by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Baker Book House, Volume 6 (Letters, Part 3, 1554-1558), 364.

26) Elsie Anne Mckee, Ed. and Trans.,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New York: Paulist Press, 2001), 33.

27)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378.

28) 1538년 9월 20일,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 *Calvin's Selected Works, vol. 4*, ed. J. Bonnet, tr. M.R. Gilchrist, (Grand Rapids: Baker, 1983), 78.

29)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김동현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9), 65. 안은찬, *op. cit.*, 82-83.

30) Roget, Ameded. *Histoire du peuple de Geneve depuis la reforme jusqu'a like'escale'e. 7 vols.* Geneve'eJ. Jullien, 1870-1883, 168. 김병환, “칼빈의 사회봉사적 목회관점에서 본 김용기 장로 그리고 김진홍 목사의 목회관에 대한 연구” (문학박사학위,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7), 82: 재인용.

의 기능을 함께 가진 종합 구빈원을 설립했다. 이 종합 구빈원은 1541년 그가 작성한 교회법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의사들의 급료는 시에서 지불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게 했고, 교회의 집사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외국인들의 복지, 여행객들의 편의 도모 등과 같은 일들을 감당케 하였다.<sup>31)</sup> 또 가난한 피난민들의 빠른 정착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기금’ (Bourse Francaise)을 설립 운영하기도 했다.<sup>32)</sup>

칼빈은 현금의 사용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케 했는데, 교직자들의 사례, 교회 시설의 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외국인과 이주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했다.<sup>33)</sup> 앞의 두 항목이 교회 내의 필요를 위한 것이고 뒤의 둘은 가난한 자들과 피난민들을 위한 비용이다. 적어도 교회 현금의 50%는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목회자들의 생활비는 당연히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본보여야 하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또 교회의 사회봉사의 중심이 되는 집사직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관리집사와 봉사집사로 나눴다. 집사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역할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게 했다.<sup>35)</sup>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그의 교구민들이 항상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봉사할 것을 권면했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

31)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0), 133. 이오갑, “칼빈의 성격과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605호(2009), 28-29. 이정숙, “칼빈의 신학과 목회로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기독교사상』, *ibid.*, 38.

32) 박경수, “칼빈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역할”, 『기독교사상』, *ibid.*, 65-66.

33) 존 칼빈, 『기독교 강요(하)』,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84-85.

34) *Ibid.*, 84-85.

35) Joh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1561” in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 by David W. Hall and Joseph H. Hall (Eerdmans, 1994), 148-149.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08, 324.

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의 요한일서 3장 17절의 주석은 그 주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잘 드러낸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라도 그 사랑을 실지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째 명제로 삼자. 둘째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미치는 정도까지 그의 형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필수품을 누릴 수 있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또는 다른 것들이 궁핍한데 우리는 풍부히 누리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참된 동정심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떤 친절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제의 불행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감동이 없으면서도 분명히 관대한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불행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참된 동정심이 울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6)</sup>

### III. 장애고난에 대한 칼빈의 접근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겪는 질병 혹은 장애일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과 불리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칼빈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해 보았거

36) Corpus Reformatorum: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runswick: C.A. Schwetschke et Filium, 1863-1897, vol 24, 612. 박근용, “칼빈의 교회사회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1), 53-54.:재인용

니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가 되는 질병과 장애에 대해 칼빈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위에서 검토한대로 칼빈은 그의 일반 저서에서 인간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런 저런 측면들을 많이 언급했지만 특별하게 장애나 질병의 고난을 꼬집어 설명을 시도한 적은 없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장애관련 구절<sup>37)</sup>의 주석에서,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인간의 장애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그의 생각을 드러낸다. 거기서 칼빈은 장애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독교강요 등 일반 저서에서 전반적으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했듯 매우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구약성경에는 장애관련구절이 총 738구절이 있고, 복음서에는 총 571구절로서 복음서 전체의 15퍼센트나 차지한다.<sup>38)</sup> 본고는 이제 신·구약성경 전체의 장애관련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의 고난에 대해 그가 이해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만, 구약성경엔 신약성경에 비해 더 많은 장애단어 및 장애 관련구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칼빈은 구약의 장애 관련구절의 주석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의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생략을 하거나 은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 따라서 장애문제에 대한 그의 다양한 견해들은 주로 복음서 주석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1. 장애고난의 원인

사람이 살아가다가 장애의 고난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 동서양을

37) 이제서, “복음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구절 분석: 예수님 치유 사역의 의미”, 『총신대 논총』 제27집(2007), 344-366. 이제서,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9), 9-49.

38) 이제서, “복음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구절 분석: 예수님 치유 사역의 의미”, *ibid.*, 349. 이제서,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ibid.*, 15.



막론하고 이런저런 통설과 추측이 존재해왔다. 특히 불교권 국가에서는 윤회설에 입각해 현생에서의 장애는 전생에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신념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았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도 현생에서의 모든 불운을 전생의 죄 때문이라 믿었고 육신적인 장애나 질병도 당연히 전생에 저지른 죄의 업과로 보았다. 그런 와중에 장애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마치 죄인처럼 기를 펼 수 없었고, 자기학대 현상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집안에 은폐시켜 두고 가족 모두 부끄러움과 수치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양이라고 해서 장애의 원인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구약성경 일부 기록을 오해해하여 장애가 죄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 차별과 편견적 태도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필연적 인과론과는 다르긴 해도 그 원인을 죄와 연관 지으려는 측면은 비슷했다.

그러나 칼빈은 장애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특히 모든 장애의 원인을 무조건 죄와 연계시키려는 맹목적인 사회통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입게 되는 장애 또는 질병, 혹은 고통이나 고난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칼빈도 장애의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로 오기도 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듯 장애의 고난이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칼빈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세 가지 원인 중 한 가지로 보는 것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유일한 장애의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죄와 관련된 경우라도 그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자극 내지는 회초리의 성격으로 보았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나 저주로 보지 않았다.<sup>39)</sup>

39)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5: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232-233, 236-239, 244-247.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8: 시편』, *op. cit.*, 226-233.

둘째, 칼빈은 사탄이 장애고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긴 하지만, 사탄이 직접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이 부패되거나 왜곡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허락 밑에서 사탄이 육체의 감각들을 손상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sup>40)</sup>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영적 육신적 약점들은 사탄이 우리를 손상하도록 하는 원인이 됨으로 우리가 우리의 불행한 상태를 막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한다.<sup>41)</sup>

셋째, 칼빈은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장애를 입게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으로 쓰시고자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혹독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연단의 과정에 심각한 육체적 상처 혹은 장애를 입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패의 표이거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영적 전투를 이겨낸 승리와 성취의 흔적이라는 것이다.<sup>42)</sup>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이 그 이유라고 말한다. 그 뜻은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여 자신들을 낮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한다.<sup>43)</sup>

## 2. 장애고난의 기능

칼빈은 특별히 복음서에 수록된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주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연관된 여러 가지 결과와 영향들에

40)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1: 공관복음』,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8), 474-480.

41)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2: 공관복음』,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1), 125-129.

42)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2: 창세기』, *op. cit.*, 244-252.

43)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3: 요한복음』,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330-356.

대해 소개한다. 칼빈은 거기서 성도의 장애고난에 포함된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치유사역이 가져오는 갖가지 효과들을 소개하므로, 성도의 장애고난이 무조건 해악이 아님을 강조하며, 지상교회에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진술한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는 죄 때문에 고난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 사용되었다.<sup>44)</sup>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등에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를 드러내신 것이다.

2) 예수님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상적인 관례에 빠져 당신을 배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례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당신에 대한 불평의 근거를 없앴다.<sup>45)</sup>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교훈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sup>46)</sup>

3)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는 전도의 일환으로도 사용되었다. 단지 장애의 치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언제나 상기시키신다.<sup>47)</sup>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됨을 보여준다.

4)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는 자연의 이치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중증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당신이 가지신 거룩하신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신다.<sup>48)</sup>

5)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치유를 거리낌 없이 성전에서 시행하십시오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의 권리와 특권이 당신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sup>49)</sup>

44)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1: 공관복음』, *op. cit.*, 546-548.

45) *Ibid.*, 339-340.

46) *Ibid.*, 464-465.

47)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3: 요한복음』, *op. cit.*, 166-175.

48)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1: 공관복음』, *op. cit.*, 234-236, 238.

49)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2: 공관복음』, *op. cit.*, 246-249.

6) 예수님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가지신 사죄의 권리와 권위를 확실하게 행사하시며 세상에 분명하게 보이신다.<sup>50)</sup>

7) 예수님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명백하게 발휘되게 하시고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신다.<sup>51)</sup>

8) 예수님이 행하신 육신의 치유는 영혼치유의 예시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영적 질병을 제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육신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것은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sup>52)</sup>

#### IV. 나가며

칼빈은 실로 입과 필설로만 외치는 사변가가 아니었다. 강대상 위에서 이웃사랑을 소리치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끝내는 무책임한 선동가가 아니었다. 개신교 교리의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체계화되었지만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선택을 설파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인간적인 정리를 무시하지 않는 섬세한 생활인이요 이웃사랑의 실천가였다. 칼빈은 대 신학자요 목회자요 탁월한 행정가였지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다. 그가 제네바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사회사업 프로그램은 현대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것들이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분명한 전제는 그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50)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1: 공관복음』, *op. cit.*, 353-358.

51) *Ibid.*, 474-480, 546-548.

52)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2: 공관복음』, *op. cit.*, 59-60.

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를 받았으며,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죄인으로서 매도나 무관심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간청한다. 흔히 칼빈을 예정론과 선택교리의 도그마에 얽매어 용서라고는 모르는 칼처럼 엄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잘못된 정보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칼빈이 설명하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고난에 처한 이웃을 위한 사랑 신학, 봉사신학에 망설임 없이 동의해야 한다. 이웃의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눈물 없이도 교회가 부흥되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는 황당한 넌센스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그토록 좋아하는 칼빈의 모든 부분을 진짜로 아는 것이 될 것이다.

칼빈은 교리만을 말하지 않았다. 선택교리와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의 탄생 50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은 필자의 심정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단지 칼빈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혹은 본질에 대한 접근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난을 주제로 하는 칼빈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기독교강요 등 그의 일반 저서와 주석만으로 탐구하다 보니 논리와 깊이에서 완성도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한계점이 되었다. 이제 칼빈의 고난신학을 발전시키고, 특히 그의 구원론, 교회론, 주권사상 등과 연계하여 그의 고난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야 함은 후속 연구자들의 몫이라 여기며, 본고의 원론적 문제제기는 그것의 한 동기와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

- Elsie Anne Mckee, Ed. and Trans.,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Joh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1561" in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 by David W. Hall and Joseph H. Hall, Eerdman's, 1994.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0.
- 박근용, "칼빈의 교회사회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1.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빌렘 판엇 스페이커트,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 박경수, "칼빈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역할", 『기독교 사상』, 2009.
- 이오갑, "칼빈의 성격과 한국교회", 『기독교 사상』, 2009.
- 이정숙, "칼빈의 신학과 목회로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기독교 사상』, 2009.
- 이재서, "복음서에 나타난 장에 관한 구절 분석: 예수님 치유 사역의 의미", 『총신대 논총』, 2007.
- 이재서,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8.
- 이재서,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9.
- 안은찬, 『칼뱅의 목회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W.J. 부스마,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 1993.
- 존 칼빈, 서문강 역, 『율과 하나님』, 서울: 지평서원 1996.
- 존 칼빈, 김동현 역,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 서울: 솔로몬, 1993.
- 존 칼빈, 김동현 역,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 서울: 솔로몬, 2005.
- 존 칼빈, 김동현 역,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I』, 서울: 솔로몬, 1995.
- 존 칼빈,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존 칼빈, 김동현 역, 『칼빈의 이사야 설교』, 서울: 솔로몬, 1993.
- 장 칼뱅, 박건택 역,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존 칼빈, 이형기 역, 『칼빈의 신앙교육서』,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존 칼빈, 엄성옥 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서울: 은성, 1993.  
 존 칼빈, 김동현 역,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서울: 솔로몬, 1994.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상)』,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중)』,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하)』,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2: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6.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5: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8: 시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1: 공관복음』, 서울: 신교출판사, 1978.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2: 공관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1.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3: 요한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개요』,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한국칼빈학회, 『칼빈, 그 후 500년』,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중세 교양교과 탐색: 변증논리를 중심으로

주영흠\*

### [ 목 차 ]

I. 서론: 중세 교양교과역의 역사	III. 중세 후기의 변증논리
1. 변증논리의 계승	1. 완전명제와 변증논리
2. 변증논리의 전개	2. 삼단논법과 변증논리
II. 중세 변증논리의 성격	IV. 결론

### I. 서론: 중세 교양교과역의 역사

서구사회에서 교양교과에 관하여 처음으로 논의한 자는 로마시대의 박식한 인물 바로(Marcus Terrentius Varro, 116-27 B.C.)이다. 그는 주전 1세기 중반에 편찬한 『신 자유학문』(Disciplinarum libri IX)에서 문법, 수사학, 변증논리, 기하, 산수, 천문학, 음악, 의학, 건축학 등을 교양교과로 선정하였다.<sup>1)</sup> 이 교과들은 모두 당시 문법학교에서 사용한 것들이지만, 변증논리와 관련된 언어학 교과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교양교과로 분류되는 7자유과가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5세기 초 수사학자였던 카펠라(Martianus Capella)가 바로의 책을 참고하여 저술한 『학문과 웅변의 결혼』(the Wedding of Philology

\* 교양교직과 교수

1) James Bowen,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I)(New York: ST. Martin's Press, 1972), p. 188; H. I.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p. 177.